



“5·18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다시 빛나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MAY PEACE FESTIVAL’에서 정자영 작가의 ‘미디어월 퍼포먼스 빛’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스크린(미디어월)을 통해 상영되는 이 작품은 어둠 속에 감춰진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빛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등산 개발·특급호텔 ... 광주 현안 새 국면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허용 ... 장소 상무지구 등 거론
관광객 유치·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정부가 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1개)을 신규 허용하면서 특급호텔 유치·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광주의 해묵은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신설될 대기업 시내 면세점 입지로 어등산 관광단지, 상무지구 국제회의복합지구, 제 3의 장소 등을 거론하면서 업체가 들고 나올 장소(부지)와 관계없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이와 함께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 한시적으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다. 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한

〈관련기사 3면〉

것은 광주공항을 포함해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는데다 광주시가 대기업 특허를 요청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광주 시내에 대기업 면세점 개설이 허용되면서 광주의 해묵은 현안들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면세점 신규 허가 관련 우선 연계가 거론되는 현안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업성(수익성) 의문 등의 이유로 12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다음달 21일 사업자 신청 마감일 앞두고, 면세점업체 등 유통업계 참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예기가 나온다. 이 사업은 지역 상인 반발 등을 고려해 상가시설 면적이 2

만4170㎡(약7000평)으로 제한됐으나, 시내 면세점은 상가시설 제한 면적과 관계없이 별도 건립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면세점 주력 품목이 화장품·의류 등 해외명품이라는 점,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상인 영업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흑시모를 반발 여론을 경계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유통·건설 등 10개 업체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유통쪽 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 면세점 허가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광단지가 장기적으로 건설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유통쪽 참여가 낮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광주 국제회의복합지구(상무지구) 역시 대기업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거론된다. 광주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과 연계해 면세점과 호텔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상무지구 국제회의 복합지구 외에도 민간업체가 제 3의 장소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업체가 참여한다면 관광객 유치와 광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600억원대 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 후 600억원대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수영대회 레거시 개발’ 용역을 통해 시설, 문화, 교육, 역사 등 분야별로 9가지 실행 주제를 정했다.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발굴한 9개 레거시는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수영 네트워크 구축, 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무등배 마스터스 수영대회(가칭) 창설,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가칭) 창설, 수리달이 야외수영장 건립, 엘리트수영선수육성생태계 조성, 광주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수영대회타

임캡슐공원 조성 등이다. 시설로는 수영진흥센터, 야외수영장,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 경기 용품 등을 매설하는 타임캡슐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창설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수영대회 홍보와

광주시, 레거시 개발 용역
시설·문화 등 9개 주제 설정

자원봉사단 운영, 교육자료 개발에도 나선다. 수영진흥센터·야외수영장·기념관 건립비는 600억원, 타임캡슐공원 조성 7억원, 교육비 6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학실(민주·광산3) 시의원은 15일 진

행된 시장질문을 통해 “대회 개최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설의 사후활용을 포함한 레거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레거시 구축을 위해 재정·행정적인 지원과 중앙 부처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회 이후 시설 내역, 재원 분담, 입지 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진상규명 위해
보안사 창고에 보관된
기밀문서 공개해야”
정동영 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사 창고에 보관돼 있는 기밀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안사 기밀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사 기밀문서가 5·18은 물론 댓글공작, 세월호 사찰 등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 데도 역대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정립됐는데도 폄하하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발표명령자 등 진실이 100%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실규명을 위해 직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에 밀고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광주시민들이 높은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 (황 대표가)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30.3도 ... 전국 첫 폭염특보 ▶7면

굿모닝 예향 - 오월길을 걷다 ▶18면



홍건희 출격 KIA 반전 이끈다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탄력,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